

-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시와 중국 국제교류 추진사항 -

1. 중국과의 교류 관련

현재 당진시와 활발한 교류도시는 산둥성 일조시와 절강성 옥환현 두 도시임. 일조시는 2007년 자매결연 체결이후 2017년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며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일조시 2명, 당진시 3명)를 하였고 경제,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간 대표단이 방문하였음.

옥환현의 경우 당진시는 2012년 5월 31일 이철환 前시장이 옥환현을 방문 우호협력의향서 체결이후 청소년 및 공무원 파견 근무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4월 26일 옥환현과 우호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추진중.

일반적으로 중국에는 외사관공실 또는 외사교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외국과의 교류, 대외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당진시는 대외협력팀이 별도로 설치되어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음. 국제교류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팀이 있어야만 보다 전문화 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할 수 있음. 충남도내 일부 시, 군의 경우 별도로 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국제교류 업무외에 별도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

교류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일조시의 경우 당진시에서 어학 연수를 한 한국어 통역직원 2명이 일조시 외사교무관공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진시에서 근무하여 '한국통, 당진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어가 유창하고 한국에 대한 문화도 깊이 이해하고 있음.

옥환현의 경우 현급시의 작은 도시로서 현재 외사관공실내에 통역직원이 없어서 교류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현재 옥환내 한국 유학을 한 인원이 있는데 정확한 행정용어나 완벽한 통역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당진시 대외협력팀에서도 중국어 통역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재 전문인력이 퇴직한 상태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당진시청 직원중 중국어 우수자 및 중국 파견 공무원을 대외협력팀 및 대중국 경제통상 분야에 배치하여야 됨.

언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판시에서 시작해 판시로 끝난다."라는 말처럼 본인과 '판시'가 없으면 잘 만나주지도 않고 일 처리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함.

중국 파견공무원이 경우 중국에서 생활하고 근무한 노화우를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나 현재 인사시스템에선 한국 복귀 이후 순환보직을 시켜 중국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당진시와 중국 지자체와의 대표적인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우선 일조시의 경우 매년 10월 한글날을 기념하여 일조시에서 한국어말하기대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당진시를 중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20~30명 정도 본선 진출자들이 한국어 경연을 펼치고 있는데 매년 참가학생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본선 수상자는 그 다음해 당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진정한 한국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이 대회는 산동성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성 학생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주청도한국영사관 및 일조시한인상회 등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옥환현의 경우 현재 초등학생 홈스테이 교류 및 공무원 상호 파견(1년)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함.

중국과의 국제교류 추진함에 있어 유의사항으로써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임.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흔히 ‘만만디’라고 하는데 이는 일처리가 느리고 게으르다는 부정적인 얘기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필자가 중국에 근무한 경험으로는 만만디는 느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업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신중한 태도라 할 수 있음.

일을 추진할 때 철저히 크로스 체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 추진시는 과감히 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북방 보다는 남방쪽 중국인이 경제관념이 뛰어나 꼼꼼이 따지고 일을 처리함.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로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한 사항임

또한 중국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함. 중국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이며 자신들을 ‘용의 자손’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팽배함.

중국과의 사업추진의 경우 판시(관계)와 미엔즈(체면)이 두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함. 판시는 앞에서 언급하였고 그만큼 중요한게 미엔즈임. 상대방에 대한 체면. 즉 존중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움.

2. 국제교류 추진 한국 지자체 일반사항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한국 지자체의 문제점은 현재 중국을 아는 ‘중국통’이 부재하다는 것이 사실임. 중국어를 유창히 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부재하며 또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 중국통 또한 많지 않은 실정임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각 시,군내 중국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국처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함.

중국의 외사관공실내에 한국 담당직원은 한국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실정을 훨씬 잘 알고 있음. 한국의 경우 대외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중국에서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며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지속근무 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인한 성급한 협약체결 및 교류추진을 지양해야 할 바임. 민선 지자체의 경우 임기내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얻기를 바람.

그러나 지자체장의 변경 된 이후로는 교류가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 군에 교류사업이 맞는 도시와 중, 장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함.

< 옥환현과의 교류추진 상황 >

- 2012. 5. 31 ~ 6. 1 : 시장님 외 10명 옥환현 방문(우호협력의향서 체결)
- 2012. 11. 22 ~ 24 : 광연비 부현장 외 5명 당진 방문(교류 증진)
- 2013. 3. 26 ~ 28 : 부시장 외 5명 옥환현 방문(청소년교류 협의)
- 2013. 7. 29 ~ 8. 2 : 당진시 초등학교 방문단 옥환현 방문(12명)
- 2014. 4. 1 : 『당진시-옥환현』 간 공무원 파견연수 협약체결
- 2014. 4. 15 : 옥환현 공무원 당진시 파견(왕함 / 6개월)
- 2014. 7. 3 : 옥환현 청소년 당진시 방문(인솔2명, 학생10명)
- 2015. 2. 24 : 당진시 공무원 옥환현 파견(정해일 / 1년)
- 2015. 3. 16 : 당진시 부시장 대표단 옥환현 방문(부시장 외 5명)
- 2015. 4. 15 : 옥환현 공무원 당진시 파견(진일위 / 6개월)
- 2015. 4. 26 : 당진시 시장 대표단 옥환현 방문, 당진시 홍보전 개최
및 우호친선도시 협약 체결(시장 외 22명)
- 2016. 2. 27 : 당진시 공무원 옥환현 파견(심장보 / 1년)
- 2016. 4. 1 ~4. 14 : 옥환현 공무원 및 시민 대상 당진시 홍보전 개최(강연자 : 심장보, 300명)
- 2015. 4. 10~14 : 당진시청 산악회 공무원 방문(공무원 6명)
- 2015. 5. 12 ~16 : 당진시 보건,항만 분야 공무원 옥환현 벤치마킹(공무원 8명)
- 2015. 7. 12 ~17 :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 대표단 당진시 방문(인솔4명, 학생 8명)
- 2015. 8. 10 ~15 : 당진시 탑동초교 대표단 옥환현 방문(인솔4명, 학생 8명)

옥환현 현황

□ 개 황

- 중국 동남 연해안에 위치, 동북쪽으로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연접
- 해안선 6,486KM로 중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지역
- 면적이 500m² 이상인 섬 3,061개, 중국에서 섬이 가장 많음
- 삼국시대 손권이 오나라를 세운 곳이며, 성내에 흐르는 첸탕장(전당강)의 옛 이름인 저장에서 저장성의 이름이 유래됨.

□ 일반현황

- 위 치 : 저장성 동남 연해구역
- 면 적 : 구역 총면적 2,279km² 그 중 육지면적 378km²
- 인 구 : 42만명 (2015년도 기준)
- 주요인사
 - 현위서기 린센화(林先華)(1968년생, 남, 한족)
 - 代縣長 (대리현장) 우차이핑(吳才平)(1966년생, 남, 한족)
- 행정구역 : 동사무소(街道辦事處) 3개, 진(鎮) 5개, 향(鄉) 3개
- 기 후 : 연평균 16.6℃~17.5℃, 강수량 1,743.9mm
- 주요자원
 - 해양자원 : 중국 중요한 해산물생산기지, 어업자원이 풍부
 - 관광자원 : 天台山風景區, 仙居風景區, 長嶼洞天風景區
 - 특 산 품 : 黃岩 감귤, 玉環 유자, 天台山 운무차
- 역사문화
 - 타이저우(台州)는 역사가 유구하고 진(秦)나라 때부터 민중군(閩中郡)을 설치하여 관할
 - 중국 유명한 해산물 생산기지
 - 과일 · 무술 · 바둑의 고장으로도 유명

□ 경제개황

- GDP : 308.22억 위안 , 전년대비 21.6% 증가
- 산업구조 : 1차 6.4%, 2차 63.6%, 3차 30.0%
- 재정수입 : 40.14억 위안, 전년대비 8.5% 증가
- 주력산업 : 공 업
 - 총 생산액은 1,144억 위안
 - 기타 전력에너지 · 자동차 · 제약 · 화공 · 방직 등
 - 산업, 공업 기업 총 11,658개
- 무역
 - 수출입 총액은 29.59억 달러, 무역기업 993개
 - 첨단기술제품 수출 5,240만 달러
- 외자유치 : 실제외자이용액 2,270만 달러, 외국투자기업 6개

□ 공공시설

- 교 통
 - 항 공 : 溫州龍灣공항과 32해리, 台州黃岩공항과 76해리
 - 수 상 : 항로조건 우월
 -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통항 가능)
- 의료시설 : 근 300개, 의료인력 2.67만명
- 과학기술 : 연속 5회 과학기술행사 개최(하이테크 기업 42개)

□ 한국 지자체와 교류 : 당진시와 최초교류(2012년)

위 치 도

